# 일본고대문헌에 나타나는 古代韓國語의 잔영*

## — 出雲國風土記를 중심으로

윤 행 순**

<차 례>

1. 머리말
2. 出雲國風土記의 표기와 훈독
3. 日本의 古代文獻에 전해지는 言語交流
4. 일본의 고대문헌에 전해지는 고대한국어의 성격
5. 出雲國風土記에 전해지는 고대한국어의 잔영
6. 맺음말

## 1. 머리말

일본의 古風土記는 官命에 의해서 각 지방에서 편찬하여 중앙의 조정에 제출한 보고문서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중요한 古風土記는 出雲國風土記 외에 常陸國風土記, 播磨國風土記, 肥前國風土記, 豊後國風土記이다. 이 중에서도 出雲國風土記는 「天平五年二月三十日勘造(733)」라는 년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본이며, 古風土記의 完本으로서 전해지고 있다. 이 자료는 元明天皇의 713년의 命에 의해서 733년에 성립된 것으로 일본의 고대문헌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일본 환동해 지역의 풍토와 언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05-A00006).

** 한발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hsyoon@hanbat.ac.kr).

出雲國風土記는 出雲 지방의 傳說, 地勢, 지명의 기원, 풍물, 등의 고대 서일본 환동해 지역의 문화의 모습을 전해주는 문헌으로서 그 내용은 漢文體와 和文體의 혼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說話口承的인 내용은 和文體로, 지리적인 내용은 漢文體로 서술하고 있다.[1] 특히 字音仮名(万葉仮名)로 표기된 和文體 속에서 고대어법이나 古語를 발견할 수 있다.[2]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韓日관계의 고대사에 있어서 出雲國風土記는 중요한 문헌으로서 주목할 수 있다. 현재에도 서일본 환동해 지역의 중심이 되는 出雲 지방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듯이 고대 한국과 일본의 出雲 지방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문화와 정치적 교류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상상은 出雲國風土記나 日本書紀에 전해지는 「新羅」와의 교류에서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당히 빈번하고 밀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류는 한반도의 정치나 문화가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의 고대어가 일본에 유입되어 일본의 고대문헌에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3]

> 意宇と号くる所以は、國引き坐しし八束水臣津野の命、詔りたまひしく、「八雲立つ出雲の國は、狹布の稚國なるかも。初國小さく作らせり。故れ、作り縫はむ」と詔りたまひて、「栲衾志羅紀(栲衾新羅) の三埼を、國の余りありやと見れば、國の余りあり」と詔りたまひて、童女の胸鉏取らして、大漁の支太衝き別けて、波多須々支穗振り別けて、三身の綱打ち掛けて、霜黑葛闇や闇やに、河船の毛曾呂毛曾呂に、國來國來と引き來縫へる國は、去豆の折絶よりして、八穗爾支豆支の御埼なり。

1) 小島憲之, 「出雲風土記の文章」, 『出雲風土記の研究』 所收, 出雲大社御遷宮記念出版, 1953; 德光久也, 『上代日本文章史』, 櫻楓社, 1964, 563쪽 이하; 沖森卓也, 『日本古代表記と文体』, 吉川弘文館, 2000, 197쪽 이하.

2) 加藤義成, 「出雲國風土記勘造当時の出雲ことば」, 『國語學』 50, 1962.

3) 尹幸舜, 「日本書紀古寫本と釋日本紀に存する朝鮮系の「王」「主」の訓法について」, 『訓點語と訓點資料』 89, 1992; 尹幸舜, 「日本書紀諸古寫本に見える「城」の訓法 -「キ」と「サシ」を中心に-」, 『朝鮮學報』 151, 1994; 尹幸舜, 「日本書紀의 諸寫本에 나타나는 고대한국어의 성격」, 『일본문화학보』 4, 1998.

(『出雲國風土記』 意宇の郡、733年 成立。<日本古典文學、小學館>)

一書に曰く、素戔嗚尊の所行無狀し。故、諸神、科するに千座置戸を以ちてして、遂に逐ふ。是の時に素戔嗚尊、其の子五十猛神を師ゐ、新羅國に降り到り、曾尸茂梨の處に居す。乃ち興言して曰く、「此の地は吾居らまく欲せず」とのたまひ、遂に埴土を以ちて舟に作り、乘りて東に渡り、出雲國に簸の川上に在る鳥上峰に到ります。

(『日本書紀』 神代上第八段一書第四、720年 成立。<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

위의 내용은 8세기 초기에 성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고대문헌으로 出雲지방의 신화와 지리를 서술한 出雲國風土記와 일본의 史書로 편찬된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일본의 고대신화에서 나오는 신라와의 교류이다. 전자의 出雲國風土記에 서술된 건국신화는 특이한 「國引き」 신화로서 고대 신라를 영토의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의 出雲지방과 고대 신라와의 긴밀한 교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4] 후자의 日本書紀에서는 素戔嗚尊가 신라에 내려와서 다시 동해를 건너 일본의 出雲지방에 도착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고대 한국과의 긴밀한 교류는 문자나 언어의 교류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으나, 出雲國風土記에서의 한자사용법이나, 고대한국어의 어휘 잔존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남아 있는 것을 찾기에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出雲國風土記의 한자사용법에 있어서 尊敬辭의 「給」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중앙의 古事記나 日本書紀로 대표되는 고대문헌의 한자사용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표기법을 개발하였다고 하며,[5] 어휘에 있

4) 瀧音能之, 「出雲國風土記の神話世界—記紀神話との比較を中心として—」, 『古代文化研究』 3, 1995, 28~30쪽; 上田正昭, 「北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出雲」, 『北東アジアのなかの古代出雲—古代朝鮮三國を中心に—』, 北東アジアシリーズ報告書 '01, 2002.

5) 藤井茂利, 「出雲國風土記の表記 — 新羅の漢文との交錯 —」, 『古代出雲の神話と

어서도 ① 大魚之支太衝別而------.(國引きの章)의 「キダ」는 한국어의 물고기나 동물의 머리를 나타내는 「구두」와의 관련성, ② 楯縫郡之境自毛峙(秋鹿郡恵曇浜の條)의 「シモ」는 한국의 「소시물(牛頭)」의 생략형으로서의 관련성, ③ 阿須理社(神門郡神社の條)는 한국어의 「스리(酒)」에 접두어 「ア」가 붙은 형태로서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出雲國風土記에만 보이는 고대일본어도 대체적으로 당시의 중앙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6] 당시의 出雲지방의 정치적 문화적인 상황은 일본의 중앙정부인 大和政權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7]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出雲國風土記에서 고대한국어의 모습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出雲國風土記의 문체와 훈독의 문제를 검토하여 보고, 일본의 대표적인 고대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古事記, 日本書紀, 萬葉集 등의 8세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고대한국어의 모습을 出雲國風土記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작업을 통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고대한국어의 모습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당시의 중앙어를 이어받았다고 알려진 出雲國風土記의 文獻에 대한 性格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2. 出雲國風土記의 표기와 훈독

出雲國風土記의 문장은 상술한 바와 같이 漢文體와 和文體의 혼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 지리, 동식물, 수산물 등은 漢文體로 기술하고, 口承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등은 變體漢文, 宣命體, 字音仮名(萬葉仮名)를 사용하여 기술한 和文體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체 중에서도 정확한 고대 어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후자의 和文體에서도 萬葉仮名로 표기된 語句라고 할 수 있다. 물론 日本書紀와 같이 정

---

伝承-天つ神と國つ神が織りなす古代東アジアの世界-」, 環日本海東北アジアシリーズ報告書 '96, 1997.

6) 加藤義成, 「出雲國風土記勘造当時の出雲ことば」, 『國語學』 50, 1962. 본 연구에서 지적된 상기의 한국어와 관련된 어휘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 결여되어 있다.

7) 門脇禎二, 『出雲の古代史』, 日本放送出版協會, 1976; 平野邦雄, 「出雲大神と出雲國造-古代出雲の世界を再考する-」, 『古代文化研究』 3, 1995.

격의 한문체의 문장을 완전히 훈독을 하는 訓點本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書紀古訓으로 그 언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出雲國風土記는 고사본으로서 가장 오랜된 것은 細川本으로서 필사의 년대가 「慶長二年(1597)」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자세한 訓點이 加點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出雲國風土記에 字音仮名의 표기는 일반어휘, 地名, 人名, 神社名, 産物名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기는 神社名과 地名, 人名 순이며, 정확한 고대어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일반어휘와 産物名은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그리 많지 않다.[8]

< 일반어휘 >

① 川下者阿志婆布這度之 (仁多郡)
② 此處而詔伊農波夜詔 (秋鹿郡)
③ 率巡八十嶋宇良加志給鞆 (仁多郡)
④御杖衝立而意惠登詔 (意宇郡)
⑤ 金弓以射給時光加加明也 (嶋根郡)
⑥ 以此而堅立加志者 (意宇郡)
⑦ 川上者木穗刺加布 (仁多郡)
⑧ 大魚之支太衝別而 (意宇郡)
⑨ 波多須々支穗振別而 (意宇郡)
⑩ 甚久々麻々志枳谷在 (飯石郡)
⑪ 是者爾多志枳小國在詔 (仁多郡)
⑫ 爾時波夜佐雨久多美乃山詔給之 (楯縫郡)
⑬ 伊弊奈枳乃麻奈古坐 (意宇郡)
⑭ 爾時波夜佐雨久多美乃山詔給之 (楯縫郡)
⑮ 爾時詔吾御心之波夜志詔 (意宇郡)
⑯ 吾御子麻須羅神御子坐者 (嶋根郡)
⑰ 河船之毛々曾々呂々爾 (意宇郡)
⑱ 御乾飯爾多爾食坐 (楯縫郡)

8) 植垣節也, 『風土記の研究並びに漢字索引』, 風間書房, 1972에 의함.

⑲ 以爾多水而 (楯縫郡)
⑳ 霜黑葛闇々耶々爾 (意宇郡)
㉑ 八穗爾支豆支乃御埼 (仁多郡)

< 産物名 >
㉒ 有年魚伊久比 (意宇郡)
㉓ 南人海所在雜物人鹿----近志呂---- (嶋根郡)
㉔ 有鴛為酒鴨鮒須我毛 (嶋根郡)
㉕ 石華 犬脚者是也 (嶋根郡)
㉖ 法吉鳥化而飛度 (嶋根郡)
㉗ 南人海所在雜物人鹿------須受枳 -- (嶋根郡)
㉘ 有椿比佐木多年木---- (意宇郡)
㉙ 北海所在雜物鮨 ---佐波- (秋鹿郡郡)
㉚ 佐世乃木葉頭刺而 (大原郡)
㉛ 有椎松 -- 伽太等草木也 (意宇郡)
㉜ 補志比魚 (嶋根郡)
㉝ 有椎松 --都波伽太等草木也 (意宇郡)
㉞ 有年魚鮭贏須- 等之類 (出雲郡)
㉟ 南人海所在雜物人鹿 鎭仁 (嶋根郡)
㊱ 南人海所在雜物人鹿和爾---- (嶋根郡)

이와 같이 字音仮名의 표기가 매우 적게 나타나는 出雲國風土記의 문장에 대한 훈독은 주석자의 방침에 따라서 그 읽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있는 出雲風土記의 훈독은 「ただし、過去についての筆錄という意識は通じて觀られ、筆錄時現在の用語より古い用語によろうとする筆錄態度のあることは注目すべきである。そうした文辭、殊にそれが美的漢文化せられたものにあっては、漢語のままに音讀すべきもののあろうことも予想せられて、如何に訓まれたかは必ずしも明らかではない。風土記全文を訓み下すということは、實は不可能に近い仕事である。本書にあっては、一応すべてを訓讀するという方針のもとに、奈良朝の訓として認められるで

あろう限りの訓例に基づいて訓み下したものである。」[9]와 「訓み下し文はなるべく和訓にしようとする。できる限り奈良時代の仮名書き例証を求めて訓み、見つからない場合は、やむなく『日本書紀』の古訓（主として寛文九年板本）を利用した。そのほか、さらに後代の資料に據って訓む場合もないではない。年号その他、和訓にできない語は音讀した。」[10]와 같은 방침에 의해서 奈良時代의 고대문헌에 의한 訓法으로 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두 가지의 出雲風土記의 주석서에서 가장 유명한 「國引き」의 문장의 훈독을 비교하여 보면 주석자가 다르지만, 字音仮名를 平仮名로 표기하는 차이가 보일뿐 훈독의 모습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秋本吉郎 校注,『日本古典文學大系2　風土記』, 岩波書店＞

意宇(おう)と号(なづ)くる所以(ゆゑ)は、國引きましし八束水臣津野命(やつかみづおみづののみこと)、詔りたまひしく、「八雲立つ出雲の國は、狭布の稚國(さのわかくに)なるかも。初國小さく作らせり。故、作り縫(つく)はな(かれぬの)」と詔りたまひて、「栲衾(たくぶすま)、志羅紀の三埼(しらぎのみさき)を、國の餘りありやと見(あま)れば、國の餘りあり(あまみあま)」と詔りたまひて、童女の胸鉏取(をとめむなすき)らして、大魚(おふを)のきだ衝き別けて、はたすすき穂振(つ わほ)り別けて、三身の綱(みつみつな)うち掛けて、霜黒葛(しもつづら)くるやくるやに、河船のもそろもろそに、國來々々(くにこくにこ)と引き來縫(きぬ)へる國は、去豆(こづ)の折絶(をりたえ)より、八穂爾支豆支(やほにきづき)の御埼(みさき)なり。此くて、堅め立てし加志(かた たかし)は、石見の國と出雲の國との堺なる、名は佐比賣山(さかりなさひめ)、是(これ)なり。

＜植垣節也 校注,『日本古典文學全集5 風土記』, 小學館＞

意宇(おう)と号(なづ)くる所以(ゆゑ)は、國引き坐(くにひま)しし八束水臣津野(やつかみづおみづの)の命(みこと)、詔りた

9) 秋本吉郎 校注,『日本古典文學大系2 風土記』, 岩波書店, 1958, 21쪽.
10) 植垣節也 校注,『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5 風土記』, 小學館, 1997, 7쪽.

やくもたつ　いづも　くに　さぬの　わかくに　はつくにちひ
まひしく、「八雲立つ出雲の國は、狹布の稚國なるかも。初國小さ
つく　かれ　つく　ぬ　の　たくぶはしらき
く作らせり。故、作り縫はむ」と詔りたまひて、「栲衾志羅紀の
みさき　くに　あま　み　くに　あま　の
三埼を、國の余りありやと見れば、國の余りあり」と詔りたまひ
をとめ　むなすさと　おふを　さだつ　わ　はたすすきほ
て、童女の胸鉏取らして、大魚の支太衝き別けて、波多須々支穗
ふわ　みつみ　つなう　か　しもつひらくる　くる　かはふね
振り別けて、三身の綱打ち掛けて、霜黑葛闇や闇やに、河船の
もそろもそろ　くにこくにこ　ひきぬ　くに　こづ　そりたえ
毛曾呂毛曾呂に、國來國來と引き來縫へる國は、去豆の折絶より
やはにきつき　みさき　か　かた　た　かし
して、八穗爾支豆支の御埼なり。此くて、堅め立てし加志は、
いはみ　くに　いづも　くに　さかひ　な　さひめやま　これ
石見の國と出雲の國との堺なる、名は佐比賣山、是なり。

이와 같은 出雲國風土記의 萬葉仮名로 표기된 일반어휘가 매우 적다는 문체상의 문제, 훈점본의 고사본이 전하지 않는다는 훈독의 문제, 지방의 산물을 기술하는 風土記라는 내용상의 문제 등에 의해서 出雲國風土記의 내용 중에서 고대한국어의 모습을 찾아서 논증하기에는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따라서 出雲國風土記의 문장의 표기와 어휘는 당시의 중앙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많은 연구에 의거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고대문헌에 나타나는 고대한국어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고 있는 문학전집의 出雲國風土記의 훈독에서 나타나는 고대한국어의 모습을 추정하고 그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 3. 日本의 古代文獻에 전해지는 言語交流

고대한국어가 전해지는 일본의 고대문헌은 出雲國風土記 외에도 日本書紀, 古事記, 万葉集 등으로서 8세기에 성립된 자료들이다. 이 중에서도 일본의 고대문헌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한일의 정치적 문화적 교류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日本書紀를 들 수 있다. 日本書紀는 養老 4년(720)에 편찬되어 神代의 神話時代부터 持統天皇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일본의 최초의 正史이다. 정식의 한문

체로 기술된 본문은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正史로서 오랜 동안 존중되어 왔다.

日本書紀에는 古事記와는 다르게 일본을 둘러싼 여러 외국과의 교섭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외국기사에는 고대한국과의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史籍인 「百濟記」, 「百濟新撰」, 「百濟本記」의 인용이 있으며, 일본서기 성립에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고대한국의 史籍 등에 대한 해석 내지 해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서기 편찬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는데, 예를 들면 書紀本文에 있어서 고대한국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백제어 「俱知(鷹)」나 新羅語 「久須尼自利(未詳)」 등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또 訓注에 나타나는 「背評 亦名能備己富里也」(繼體紀 24年 9月)의 「コホリ」는 고대한국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예이다. 또한 일본서기 神代卷에는 일본서기의 편찬자 중에서 고대한국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참가하고 있었다는 문장으로서 「保食人實已死矣. 唯有其神之頂, 化爲牛馬. 顱上生粟. 眉上生蠶. 眼中生稗. 腹中生稻. 陰生麥及大小豆」(神代上第五段一書第十一)의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保食神(食物을 주재하는 神)」의 몸에서 곡물의 씨앗이 열리는 곳을 기록한 문장이다.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上』(102쪽)의 頭注에서 金澤庄三郎과 田蒙秀의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하에 牛馬・粟・蚕・稗・稻・麥・大豆・小豆가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열리는 장소와 곡물 사이에는 한국어로서만 풀 수 있는 대응이 있다. 다음에 한국어를 로마자로 써보면, 頭(mɐrɐ)와 馬(mɐr), 顱(chɐ)와 粟(cho), 眼(nun)와 稗(nui 백미에 혼합된 稗의 종류), 腹(pɐi 古形은 pɐri)와 稻(pyŏ), 女陰(pŏti)와 小豆(p'ɐt)이다. 이것은 古事記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書紀의 편자 중에 한국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체의 장소와 열리는 곡물과를 관련시켰다고 생각된다」와 같은 고대한국어의 유희가 지적되는 문장으로서 일본서기 편찬에는 고대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日本書紀는 오래 전부터 한문체로 쓰인 문장을 和訓으로 읽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일본서기

讀法이다. 따라서 일본서기는 諸古寫本과 주석서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사본에 전해지는 오래된 訓을 「書紀古訓」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古訓에는 다수의 고대한국어가 전해지고 있다. 일본서기의 最古의 訓點本인 岩崎本日本書紀(10세기말朱點) 2권에는 「王キシ、コキシ」, 「王子 セシム」, 「太子 昆キシ」 등과 같은 고대한국어가 보이는데, 이와 같이 訓點本에서의 고대한국어의 산존은 訓點의 加點者가 습득하고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무언가의 傳本 내지 祖本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加點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諸古寫本에 고대한국어를 加點하는 전통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오래된 古寫本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오래 전부터 고대한국어를 그대로 寫本에 표기하는 전통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日本書紀에 고대한국어가 나타나는 표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일본서기 편찬 당시의 字音仮名 표기이고, 또 하나는 일본서기 訓點本인 古寫本과 釋日本紀 등에 片仮名訓으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이러한 예들은 표기의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자의 字音仮名 표기는 8세기 초의 고대한국어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 후자의 古寫本과 釋日本紀 등의 片仮名訓은 10세기 말에서 14세기의 訓點本에 나타나는 관계로 그 이전의 고대한국어가 변형된 형태로 加點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日本書紀는 고대한국어를 전해주는 귀중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古事記는 712년에 太安万侶에 의해서 성립된 일본의 自國民을 위한 역사서로서, 전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神代부터 推古天皇까지의 일본의 신화, 전설, 계보, 가요를 역사적인 소설풍으로 엮은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일본어 자료로서의 가치는 문체사상 한문체를 바탕으로 和化漢文體, 즉 일본어 語順으로 기술한 독창적인 문체로 기술한 점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요는 원래 산문에서도 구두전승에 의한 것이 많으며, 문자이전의 언어생활에 대한 모습도 찾을 수 있다. 특히 訓注는 편찬 당시에 이미 古語이었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본문 중에 한문이 아닌 순순한 1자1음의 字音仮名를 표기한 어휘 등은 고대일본어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역사서에도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대 한국과의 문화교류 속에서 「阿知吉師, 和邇吉師」와 같은 「吉師」의 어휘를 발견할 수 있다.

新羅の人、參ゐ渡り來たり。是を以ちて、建內宿禰命、引き率て、渡の堤の池と爲て、百濟池を作りき。亦、百濟の國主照古王、牡馬壹疋・牝馬壹疋を以て、阿知吉師に付けて貢上りき<此の阿知吉師は、阿直史等が祖ぞ>。亦、橫と大鏡とを貢上りき。又、百濟國に科せ賜ひしく、「若し賢しき人有らば、貢上れ」とおほせたまひき。故、命を受けて貢上りし人の名は、和邇吉師。卽ち論語十卷・千字文一卷、併せて十一卷を、是の人に付けて卽ち貢上りき<此の和邇吉師は、文首等が祖ぞ> (『古事記』 應神記、712年 成立。<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

萬葉集은 20권으로 나누어져 4500여수의 古代 歌謠을 수록하고 있는 8세기의 고대문헌 중에서 유일한 韻文資料이다. 萬葉集의 用字法은 일본의 문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한자의 音과 訓을 활용해서 만든 字音仮名(萬葉仮名)의 표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字音仮名는 어휘의 음운이나 표기를 정확하게 나타낸 것으로서 고대일본어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 되어 있으며, 아래에 제시한 예와 같이 당시의 읊놀이의 문화교류 속에서 잔존한 언어로서 「ころ(걸), づ(도)く」 등이 전해지고 있는 중요한 고대한국어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春霞 たなびく今日の 夕月(づく)[三伏一向]夜 淸く照るらむ高松の野に

(『万葉集』 卷第10-1874、8세기 중기 成立。<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

菅の根の ねもころ[一伏三向]ごろに, 我が思へる 妹によりては言の忌みも なくありことと 齋瓮を 齋ひ掘りすゑ 竹玉を 間なく貫き垂れ 天地の 神をそ我が祈む いたもすべなみ

(『万葉集』 卷第13-3284、8세기 중기 成立。<日本古典文學

全集、小學館>)

## 4. 일본의 고대문헌에 전해지는 고대한국어의 성격

出雲國風土記에는 어느 정도의 고대한국어라고 할 수 있는 어휘가 나타나는가를 가늠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본고는 『岩波古語辭典』[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대한국어」와 동일한 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 사전에서 한일동일기원어라고 추정한 어휘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근거에 의해서 추출된 것은 아니지만, 出雲國風土記라는 문헌이 고대 한일어를 추정 및 추출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이 사전에 제시된 동일 기원의 한국어는 다음과 같다.

【ア行】あさ(朝)--a'tʃem(朝),[12] あさ(麻)--sam(麻), あに(豊)--ani(打消), あまた(數)--man(多), あれ(生)--al(卵), ありひし(南)--arp(前・南), い(助詞)—i(助詞), いきり(熱)--ikïl ikïl(熱), いひ(言)--ip(言), うさぎ(兎)--t'o kki(兎), うし(牛)—syo(牛), うぢ(氏)—ul(族), うま(馬)—mər(馬), うまし(甘)--mas(旨), うり(瓜)—*ori(瓜), おとがひ(頤)—t'ök(頤), おひ(負)--öp(負), (おほ)とれ--t'öl(髮), おも(母)—ömi(母)

【カ行】か(日)—hai(日), かき(鍵)—karkuri(鍵), かげ(影)—kəri(影), かさ(笠)—kat(笠), かささぎ(鵲)—katʃi(鵲), かし(枷)--k'al(枷), (かた)な(刀)--nal(刀), かち(徒歩)—köl(徒ル), かぶと(兜)--kapot(甲衣), かま(釜)--kama(釜), から(族)—kyöröi(族), き(杵)--ko(杵), き(城)—kï(百濟語, 城), きき(聞)--kui(耳), きし(吉士)—(신라관등), くか(たち)(探湯)--kuk(羹), くき(岫)—kokəi(岫), くし(串)--kos(串), くだら(百濟)--(百濟國名), くち(鷹)--(百濟鷹名), くぢら(鯨)--*korari(鯨), くつ(口)—kul(口), くは(鍬)—xomɐi(鋤), くはし(細・麗)—kop(細・美), くま(曲) —kop(曲), くま

11) 大野晋 外, 『岩波 古語辭典』, 岩波書店, 1974. 위 사전에서 「朝鮮語と同原, 朝鮮語と同原か, 朝鮮語と關係があるか」등의 어휘들을 일관해서 취급하기로 한다.

12) あさ(朝)는 「日本國語大辭典」의 語原說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설로서 「アシタ(明日)・アク(開く)」의 「アサ」의「ア」와 동일한 기원으로 인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어원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일본어휘들에 대한 어원설까지는 천착하지 않기로 한다.

(熊)—kom(熊), くも・くもり(雲・曇)—kurum(雲), くも(蜘蛛)—kömüi(蜘蛛), くらたに(くら谷)—koltan(洞谷(谷은 高句麗語)), くれ(吳)—kuul(文), くろ(畔)—korang(畔), こきし(犍吉支)—kuŋ吉士(大君), こし(腰)—xöri(腰), こと(事)—köt(事), こほり(郡)—kopɐr(郡), こま(高麗)—(高句麗)

【サ行】さ・さち(矢)—sal(矢), さひ(鉏)—stapu(耒), しし(宍)—sasɐm( 鹿), しま(嶋)—siem(嶋), しらき(新羅)—(新羅), しり(尻)—turi(後), すぐり(村主)—(古代韓國語, 村長), すす(煤)—sus(炭), すぢ(筋)—tʃul( 筋), そ(其)—tʃö(其), そ(十)—son(手), そ(背)—tïng(背)

【タ行】たく(栲)—tak(楮), たち(達・等—tïl(複數接尾語), たひ(鯛)—tomi(鯛), つき(月)—tɐl(月), つと(苞)—tot(苞), つま(爪)—t'op(爪), つる(弦)—tʃul(弦), つる(鶴)—turumi(鶴), てら(寺)—tiɔr(刹), とぢ(閉)—tat(閉)

【ナ行】な(己)—na(己), なた(鉈)—nat(鎌), なに(何)—nu(誰), なは(縄)—no(縄), なみだ(涙)—nunmïl(涙), にき(和)—nik(熟), ぬ(沼)—nop(沼), ぬひ(縫)—nup(縫), のべ(伸)—nöp(廣), のり(告)—nil(云)

【ハ行】はぎ(脛)—pal(脚), はた(機)—poit'il(機), はた(畑)—pat(畑), はた(端)—pas(外), はち(蜂)—pöl(蜂), はみ・へみ(蝮・蛇)—pɐiyam(蛇), はら(腹)—*pɐri(腹), はり(針)—panɐl(針), ひ(火)—pïl(火), ひぢ(肘)—p'il(臂), ひろ(尋)—pal(尋), ふき(吹)—pul(吹), ふくふくし(肺)—puxua (肺), へ(瓮)—pyöng(瓮), へ(舳)—pɐi(舟), へら(鐁)—pyöt(犁), ほし(星)—pyöl(星), ほたる(螢)—*ponteri(螢), ほと(女陰)—pötʃi(女陰)

【マ行】ます(枡)—mal(枡), み・みづ(水)—mïl(水), みつち(蛟)—miri(龍), む(身)—mom(身), むね(棟)—mɐrɐ(棟), むら(村)—mɐul(里), むろ(室)—maru(舍), もり(森)—*mori(山)

【ワ行】わた(海)—pata(海), (を)むれ(小山)—*mori(山)

상기의 한일어에 대한 동일 기원어에는 비교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동일 기원어라고 생각되는 어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대개는 그 동안의 많은 학자들이 동일어라고 언급된 116예의 어휘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의 성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문법적으로는 나누어보면 명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로서는 あれ(生)—al(卵), いきり(熱)—ikïl-ikïl(熱), いひ(言)—ip(口), おひ(負)—öp(負), きき(聞)—kui(耳), とぢ(閉)—tat(閉), ぬひ(縫)—nup(縫), のり(告)—nil(云), ふき(吹)—pul(吹), のべ(伸)—nöp(廣)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형용사와 부사로서는 うまし(甘)—mas(味), くはし

(細・麗)—kop(細・美), あまた(數)—man(多) 등이며, 조사로서는 い(助詞)—i(助詞), 대명사로서는 な(己)—na(己), なに(何)—nu(誰), そ(其)—tʃö(其)가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あに(豈)—ani(打消), たち(達・等)—tïl(複數接尾語)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명사의 어휘의 성격을 분류해 보면, 동식물에 관련된 것과 문화어로서는 생활과 관련해서 농경에 관련된 어휘와 행정에 관련된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연에 관련된 어휘와 생활어, 기본어휘에 속하는 신체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대 일본문헌에서 외래어로서의 고대한국어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에 관련된 어휘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문화의 유입이 매우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동식물】 うさぎ(兎)—t'o-kki(兎), うし(牛)—syo(牛), うま(馬)—mɐr(馬), うり(瓜)—*ori(瓜), かささぎ(鵲)—katʃi(鵲), くぢら(鯨)—*korari(鯨), くま(熊)—kom(熊), くも(蜘蛛)—kömïi(蜘蛛), しし(宍)—sasɐm(鹿), たく(栲)—tak(楮), たひ(鯛)—tomi(鯛), つる(鶴)—turumi(鶴), はち(蜂)—pöl(蜂), はみ・へみ(蝮・蛇)—pɐiyam(蛇), ほたる(螢)—*pontɐri(螢), みつち(蛟)—mirï(龍)

【문화어】 あさ(麻)—sam(麻), かき(鍵)—karkuri(鍵), かさ(笠)—kat(笠), かし(枷)—k'al(枷), (かた)な(刀)—nal(刃), かぶと(兜)—kapot(甲衣), かま(釜)—kama(釜), き(杵)—ko(杵), き(城)—kï(百濟語, 城), くき(岫)—kokɐi(岫), くは(鍬)—xomɐi(鋤), くらたに(くら谷)—koltan(洞谷(谷은 高句麗語)), くれ(呉)—kuɯl(文), くろ(畔)—korang(畔), こほり(郡)—kopɐr(郡), さ・さち(矢)—sal(矢), さひ(鉏)—stapu(耒), しま(嶋)—siem(嶋), すす(煤)—sus(炭), すぢ(筋)—tʃul(筋), つと(苞)—tot(苞), つる(弦)—tʃul(弦), てら(寺)—tiɔr(刹), なた(鉈)—nat(鎌), なは(縄)—no(縄), ぬ(沼)—nop(沼), はた(畑)—pat(畑), はた(機)—poit'ïl(機), はり(針)—panɐl(針), ひろ(尋)—pal(尋), へ(瓮)—pyöng(瓮), へ(舳)—pɐi(舟), へら(鑿)—pyöt(犁), ます(枡)—mal(枡), むね(棟)—mɐrɐ(棟), むら(村)—mɐul(里), むろ(室)—maru(舍), もり(森) —*mori(山) (を)むれ(小山)—*mori(山)

【생활어】 あさ(朝)—a'tʃɐm(朝), うぢ(氏)—ul(族), おも(母)—ömi(母), か(日)—hai(日), かげ(影)—kɐri(影), かち(徒歩)—köl(徒歩), から(族)—kyöröi(族), くし(串)—kos(串), くか(たち)(探湯)—kuk(羹), くま(曲) —kop(曲), くも・くも

り(雲・曇)—kurum(雲), こと(事)—köt(事), つき(月)—tɐl(月), なみだ(涙)—nunmïl(涙), にき(和)—nik(熟), はた(端)—pas(外), ひ(火)—pïl(火), ほし(星)—pyöl(星), み・みづ(水)—mïl(水), わた(海)—pata(海)

【신체어】おとがひ(頤)—t'ök(頤), (おぼ)とれ—t'öl(髪), くつ(口)—kul (口), こし(腰)—xöri(腰), しり(尻)—turi(後), そ(十)—son(手), そ(背)—tïng(背), つま(爪)—t'op(爪), はぎ(脛)—pal(脚), はら(腹)—*pɐri(腹), ひぢ(肘)—p'ïl(臂), ふくふくし(肺)—puxua(肺), ほと(女陰)—pötʃi(女陰), む(身)—mom(身)

【고대한국어】ありひし(南)—arp(前・南), から(韓)—(伽倻國), きし(吉士)—(신라관등), くだら(百濟)—(百濟國), くち(鷹)—(百濟鷹名), こきし(犍吉支)—kuɯn吉士(大君), こま(高麗)—(高句麗國), しらき(新羅) —(新羅國), すぐり(村主)—(古代韓國語, 村長), そしもり(曾尸茂利)—(고대한국지명)

## 5. 出雲國風土記에 전해지는 고대한국어의 잔영

상기의 『岩波古語辭典』에서 나오는 고대한국어가 出雲國風土記에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出雲國風土記의 내용의 특성과 다른 고대문헌과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出雲國風土記에 나타나고 있는 어휘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ア行】あさ(朝)—a'tʃɐm(朝), あさ(麻)—sam(麻), あまた(數)—man(多), あれ(生)—al(卵), うさぎ(兎)—t'o-kki(兎), うま(馬)—mɐr(馬), おひ(負)—öp(負)

【カ行】か(日)—hai(日), かさ(笠)—kat(笠), から(族)—kyöröi(族), き(杵)—ko(杵), き(城)—kï(百濟語, 城), くし(串)—kos(串), くつ・くち(口)—kul(口), くはし(細・麗)—kop(細・美), くま(熊)—kom(熊), (くら)たに(くら谷)—koltan(洞谷(谷은 高句麗語)), こと(事)—köt (事), こほり( 郡)—kopɐr(郡)

【サ行】しし(宍)—sasɐm(鹿), しま(嶋)—siem(嶋), しらき(新羅)—(新羅), そ(其)—tʃö(其), そ(十)—son(手)

【タ行】たく(栲)—tak(楮), たち(達・等)—tïl(複數接尾語), つる(鶴)—turumi(鶴)

【ナ行】な(己)—na(己), なは(縄)—no(縄), にき(和)—nik(熟), ぬひ(縫)—nup(縫), のり(告)—nil(云)

【ハ行】はら(腹)—*pɐri(腹), ひ(火)—pïl(火), ふき(吹)—pul(吹)

【マ行】み・みづ(水)—mïl(水), む(身)—mom(身), むら(村)—mɐul(里), むろ(室)—maru(舍)

【ワ行】わた(海)ーpata(海)

상기의 『岩波古語辭典』에서의 116예의 한일 동일기원어가 「出雲國風土記」에서는 40예의 어휘만이 나타나고 있다.[13] 이것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出雲國風土記」에 대한 훈독이 고대일본어에서만 사용된 특수한 어휘보다는 이미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정착된 훈으로 읽어내려갔다는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出雲國風土記」에 대한 지방의 풍토나 지리와 특산물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으로 인한 한일 동일기원어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몇 개의 어휘에 대해서 한국문헌에서의 그 모습을 찾아보도록 한다.

1) カサ(笠)
かさがら
① 笠柄の社. 志多備の社食師の社 (意宇の郡)[14]
かさ
② 我が背子が 使ひを待つと 笠も着ず 出でつつそ見し 雨の降らくに (万葉集 2681)
③ 갇 爲笠 (訓民正音解例本 用字)

2) キ(城)
のき
① 野城の驛。郡家の正東二十里八十歩なり。野城の大神の坐すに依りて、故れ、野城といふ。 (意宇の郡)[15]

13) 「出雲國風土記」에는 40예 이외에도 한국어와 동일기원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어휘들을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おる(織る)ー올(絲), か(處)ー곳(處), かみ(神)ー(임)금(王), の(野・地)ーナ(라)(國)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고구려어의 지명과 비교되고 있는 수사 み・いつ・なな・とお(三・五・七・十)ー密・于次・難隱・德을 추가할 수 있다.

14)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본의 용례는 秋本吉郎 校注, 『日本古典文學大系2 風土記』, 岩波書店, 1958을 중심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5) 加藤義成, 『修訂出雲國風土記參究』, 今井書店, 1997, 118쪽. 이 驛은 延喜式에 「能義驛」, 和名抄에는 「能義鄕」으로 되어 있으며, 字音仮名로서 「義」가 乙類仮名로

② 韓國の城[基]の上に立ちて大葉子は領巾振らすも日本へ向きて 韓國の城[基]の上に立たし大葉子は領巾振らす見ゆ難波へ向きて (欽明紀23年, 岩波日本古典文學大系『日本書紀』, 以下 同)

③ 悅城縣 本百濟悅己縣 景德王改名
潔城郡 本百濟悅己郡 景德王改名
尹城縣 本悅己 (『三國史記』 卷第三十六, 三十七・地理三, 四)

3) クシ(串)

① 和爾をば、殺割きて串(くし)に掛け、路の垂に立てき。(意宇の郡)

② 又山雷者をして、五百箇の眞坂樹の八十玉籤(たまくし)を採らしむ。玉籤此をば多摩倶之と云ふ。(神代紀上第7段)

③ 중싱을 고재 빼여 굽고 (月印釋譜23;79)

4) クハシ(麗・細)

① 老、枝葉を細(くは)しく思へ、詞源を裁り定め、(總記)

② 高志の國に 賢し女を 有りと聞かして 麗し[久波志]女を 有りと聞こして (古事記歌謠 2)

③ 七寶로 쑤미실씨 고ᄫᅴ시고 쳔쳔ᄒᆞ더시니 (月印千江之曲上 43)

5) クマ(熊)

① 熊野(くまの)の山。郡家の正南一十八里なり。檜檀あり。謂はゆる熊野(くまの)の大神の社、坐す。(意宇の郡)

② 荒熊の 住むといふ山の 師齒迫山 責めて 問ふとも 汝が名は告らじ(万葉集2696)
石の上布留の山の熊[久末]が爪(琴歌譜)

③ 天皇、百濟、高麗の爲に破れぬと聞きて、久麻那利(こむなり)を以て汶洲王に賜ひて (圖書寮本日本書紀 14-480)

---

표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熊津 고마느르 (龍飛御天歌 3)

6) コホリ(郡)

① 意宇の郡(こほり)。郷は 十 、里は三十二、余戸は 、馬家は三、神戸は三、里は六 なり。(意宇の郡)

② 毛野臣、百濟の兵來ると聞きて、背評(へこほり)を迎へ討つ。背評は地の名なり。亦の名は能備己富里。(繼體紀 24年)

③ 在豊徳郡北十五里栗村 조ᄒᆞᆯ (龍飛御天歌 2)

7) シマ(嶋)

① 嶋根(しまね)の郡。郷は八、里は二十四。 餘戸は 、馬家は なり。(意宇の郡)

② 八千矛の 神の命や 我が大國主 汝こそは 男にいませば 打ち廻る 島[斯麻]の崎々 掻き廻る 磯の崎落ちず 若草の 妻持たせらめ (古事記歌謠 5)

③ 内佐平岐味、高き名有る人四十餘, 嶋(せま)に放たれぬ。(岩崎本日本書紀 24-24)

섬 爲島 (訓民正音解例本 用字)

8) シラキ(新羅)

①「栲衾志羅紀(たくぶすま)の三埼を、國の餘ありやと見れば、國の餘あり」と詔りたまひて、(意宇の郡)

② 新羅[新羅奇]へか 家にか歸る 壹岐の島 行かむたどきも 思ひかねつも (万葉集 3696)

③ 國號曰徐耶伐 或云斯羅 或云斯盧 或云新羅 脫解王九年始林有鷄怪 史名鷄林 (三國史記 地理1)

9) ニき(和・柔)

① 海若等、大神の和み魂(にきたま)は靜まりて、荒み魂は皆悉に狹嶺呂が乞む

ところに依り給へ（意字の郡）

② 和魂、此には珥岐瀰多摩と云ふ。（神功紀攝政前、仲哀 9年、分注）

奉るうづの幣帛は、御服は明るたへ照るたへ――和稻(にきしね)荒稻 （祝詞廣瀨大忌祭）

③ 今倭國の山部邊郡の額田邑の熟(かはをし) 皮(にひり(左訓)) 高麗は是其の後なり。[16]（圖書寮本日本書紀 15-327）

豆子ㅣ 비예 ᄒᆞ마 닉도다 [豆子雨已熟]（分類杜工部詩諺解9）

10) タク(楮)

①「栲衾(たくぶすま)志羅紀の三埼を、國の餘ありやと見れば、國の餘あり」と詔りたまひて、（意字の郡）

② 眼炎く金、銀、彩色、多に其の國在り。是を栲衾(たくぶすま)新羅國と謂ふ。（仲哀紀8年）

③ 栲衾[多久夫須麻] 新羅へいます 君が目を 今日か明日かと 齋ひて待たむ（万葉集 3578）

닥 爲楮（訓民正音解例本 用字）

11) ミ・ミヅ(水)

① 水草川(みくさがわ)。源は二つあり。――二つの水(みづ)合ひて、南に流れて入海に入る。（島根の郡）[17]

② 水灌く[美那曾々久] 臣の嬬女 秀樽取らすも 秀樽取り 堅く取らせ

16)「にひり(熟)」는 일본서기 고사본에 한국어「닉다」를 기입한 것이라고 추정됨. 이에 대한 한일어 비교 고찰은『白鳥庫吉著作集3』, 146쪽을 참조하길 바라며, 徐在克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닉다」의 단어족의 공통어핵으로서「*nug-, *nog- >*nu-ɣ,*noɣ-」으로 추정하고 있음(『中世國語의 單語族硏究』, 계명대학교 출판부, 43쪽 이하).

17) 일본어의「み(水)」는 복합어로만 나타나고 있는 고대형으로서「みづ(水)」는「み」와「づ」의 복합형이라고 추정됨.

確堅く 弥堅く取らせ 秀樽取らす子 (古事記歌謠102)

③ 水谷城 一云買旦忽 (三國史記 地理2)

12) ムラ(村)

① 黑田の驛。郡家と同じき處なり。郡家の西北のかた二里に黑田の村(むら)あり。土の体色黑し。

故れ、黑田と云ふ。(意宇の郡)

② 遂に菟田下縣に達る。因りて其の至りましし處を号けて、菟田の穿邑、穿邑、此をば于介知能務羅と云ふ。と曰ふ。(神武紀卽位前期6年)

③ 還る時に触路に、膽利枳牟羅、布那牟羅、牟雌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五つの城を抜る。(繼體紀 24年)

노픈 마슬래 다 武臣이러니(高官皆武臣) (杜詩諺解23:11)

13) ワタ

① 海若等、大神の和み魂は靜まりて、荒み魂は皆悉に猪麻呂が乞むところに依り給へ (意宇の郡)

② 海神[和多都美]の 手巻の玉を 家づとに 妹に遺らむと 拾ひ取り 袖には入れて (万葉集3627)

③ 四口波珍飡 或云海干 或云破彌干<破彌의 彌는 珍의 誤字>
(三國史記卷38 職官上)

微叱己知 波珍(はとり)干岐 (釋日本紀9-摂政前期)

바르래 가ᄂᆞ니 [于海必達] (龍飛御天歌2)[18]

小倉進平는 日本書紀에서의 고대한국어 기원인 외래어를 「① 고대

18) 중세한국어에는 「바ᄅᆞᆯ(海)」과 「바다ᄒᆞ(海)」의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고대의 「*patɔr」에서 모음간에 존재하는 「-t-」가 「-r-」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됨(「河野六郎著作集1 朝鮮語學論文集」, 386쪽). 다른 견해로서 어말의 「-r」이 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朴炳采, 「古代三國의 地名語彙攷」, 『白山學報』 5, 1968).

한국어 ② 한·일 공통어 ③ 고대한국어에서의 차용어」로 분류하고 있는데,[19]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양 국어의 현 연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일의 문화나 언어교류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서, 고대한국어의 참모습을 규명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더욱이 일본보다 한국에 있어서의 고대자료의 잔존이 몹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작업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고대어 자료의 결핍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전해지는 고대한국어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出雲國風土記」에서 나타나는 고대한국어의 모습을 小倉進平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공통성을 찾아내서 분류해 본다면, 문화교류에 의한 어휘와 언어동질성에 의한 어휘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자는 소위 명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어휘나 활용어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어휘들 중에서도 あれ(生)—al(卵), から(族)—kyöröi(族), き(城)—kï(百濟語, 城), そ(十)—son(手), たく(栲)—tak(楮), な(己)—na(己), にき(和)—nik(熟), のり(告)—nil(云), む(身)—mom(身), わた(海)—pata(海) 등은 현대일본어에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고대 일본어에서 특정한 어휘에서만 사용된 고대한국어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出雲國風土記」에서 나타나는 고대한국어의 잔영은 다른 일본의 고대문헌에도 사용된 어휘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出雲國風土記」가 그대로 그 당시의 중앙어의 계통을 충실히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문화교류에 의한 어휘

あさ(麻)—sam(麻), あまた(數)—man(多), うさぎ(兎)—t'o-kki(兎), うま(馬)—mɐr(馬), かさ (笠)—kat(笠), き(杵)—ko(杵), くし(串)—kos(串), くま(熊)—kom(熊), (くら)たに(くら谷)—koltan(洞谷(谷은 高句麗語)), こほり(郡)—kopɐr(郡), しし(宍)—sasɐm(鹿), しま(嶋)—siem(嶋),

19) 小倉進平, 「日本紀に於ける外來語研究」, 『國學院雜誌』 46-2, 1940年 2月.

しらき(新羅)—(新羅), たく(栲)—tak(楮), つる(鶴)—turumi(鶴), なは(縄)—no(縄), はら(腹)—*pɐri(腹), むら(村)—mɐul(里), むろ(室)—maru(舍)

(2) 기초생활 어휘

あさ(朝)—a'tʃɐm(朝), あれ(生)—al(卵), おひ(負)—öp(負), か(日)—hai(日), から(族)—kyöröi(族), き(城)—kï(百濟語, 城), くつ・くち(口)—kul(口), くはし(細・麗)—kop(細・美), こと(事)—köt(事), そ(十)—son(手), そ(其)—tʃö(其), たち(達・等)—tïl(複數接尾語), な(己)—na(己), にき(和)—nik(熟), ぬひ(縫)—nup(縫), のり(告)—nil(云), ひ(火)—pïl(火), ふき(吹)—pul(吹), み・みづ(水)—mïl(水), む(身)—mom(身), わた(海)—pata(海)

## 6. 맺음말

고대한반도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古代語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빈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에서 한글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한자가 書記用 문자로서 오랜 동안 사용되어져 왔다. 이런 한자·한문은 일본처럼 訓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音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15세기 이전의 한반도에 어떠한 언어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한문으로 쓰인 단편적인 한글 이전의 자료는 한자를 사용한 표기체계이며, 거의 단어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고대어의 문법이나 음운의 체계적인 연구 자료로서는 부족한 것들이다. 이러한 한국 측의 고대자료의 결핍에 의해서, 일본 측의 8세기의 「出雲國風土記」를 비롯한 고대문헌에 나타나는 고대한국어는 우선 연대가 오래된 자료라는 점에서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고대한국어도 단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등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들 개개의 어휘의 음운상태는 일본의 풍부한 古代語資料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복원 내지는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出雲國風土記」에 전하는 고대한국어의 모습을 나타나는 어휘들은 8세기 대표적인 일본 고대문헌 자료로서 알려진 「日本書紀」, 「古事記」, 「万葉集」 등에서도 전해지는 것들이 동일한 어휘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出雲國風土記」의 언어가 중앙어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出雲지방과의 고대 한반도의 문화교류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활발하였고 긴밀하였다는 것을 여러 고대 문헌에서 추측할 수 있다. 「出雲國風土記」와 같은 문헌은 보수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일본의 다른 고대문헌과의 언어의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出雲」 지방을 중심으로 한 서일본 환동해 지역에 대한 현대방언에는 아직 규명되지 않는 많은 어휘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과 한국어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는 폭넓은 현지 조사 작업을 통해서 한국과의 문화교류에 의한 언어의 잔영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주요어**: 出雲國風土記, 고대한국어, 일본고대어, 서일본 환동해지역어, 한일 동일기원어.

# 참고문헌

鮎貝房之進,「雜攷」 제7집,『日本書紀朝鮮地名考』所收.
新井白石,『東雅』,『新井白石全集第四卷』所收.

김민수 편,『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1997.
도수희,「百濟語「己」에 대해서」,『새결朴泰權先生回甲紀念論叢』, 1984.
도수희,『百濟語 硏究 Ⅰ·Ⅱ』,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7·1989.
박재양,「우리나라 텃새의 새 이름 어원 연구」,『경희어문학』 제17집, 1997.
서정범,『韓國語源辭典』, 보고사, 2000.
양주동,『增訂古歌硏究』, 일조각, 1942.
유창균,『韓國 古代漢字音 硏究 Ⅱ』, 계명대학출판부, 1983.
이숭녕,「韓日兩語의 語彙比較試考 — 糞尿語를 중심으로 —」,『學術院會報』 제1집, 1955.
이기문,『國語 語彙史 硏究』, 동아출판사, 1991.
이병선,『韓國古代國名地名硏究』, 아세아문화사, 1997.
金澤庄三郎,「朝鮮硏究と日本書紀」,『朝鮮學報』 제1집,『日韓古地名の硏究』所收, 1955.
河野六郎,「朝鮮方言學試攷」,『京城帝國大學文學會編纂』 11輯,『河野六郎著作集1』所收.
白鳥庫吉,「本邦の鷹匠起源傳說に就いて」(『史學雜誌』 8편 4, 6, 7호),『白鳥庫吉著作集2』所收.
白鳥庫吉,「日本書紀に見える韓語の解釋」(『史學雜誌』 8편 4, 6, 7호),「再び朝鮮の古語について」(『言語學雜誌』 2권 1호),『白鳥庫吉著作集3』所收.
三品彰英,『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吉川弘文館, 1962.
宮崎道三郎,「日本法制史の硏究上に於ける朝鮮語の價値」,『法學協會雜誌』 21권 4, 5호),『法制史論集』所收.

抄　錄

# 日本古代文献に現れる古代韓國語の残影

## — 出雲國風土記を中心に

尹　幸　舜

日本の古風土記は官名によって各地方において編纂して、中央の朝廷に提出した報告書である。出雲国風土記は「天平五年二月三十日勘造(733)」という年代記を記錄している唯一本であり、古風土記の完本として伝えられている。この資料は元明天皇の713年の命によって、733年に成立されたもので、日本の古代文獻資料として重要な位置を占めており、西日本環東海地域の風土と言語が分かる代表的な文獻といえる。

出雲国風土記は出雲地方の傳說、地勢、地名の起源、風物などの古代西日本環東海地域の文化の姿を伝えてくれる文獻として、その內容は漢文體と和文體の混用に現れており、說話口承的な內容は和文體に、地理的な內容は漢文體に叙述している。特に万葉仮名で表記された和文體の中において古代語法や古語を發見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もう一方では韓日關係の古代史において出雲国風土記は重要な文獻として注目することができる。古代韓国と日本の出雲地方の關係は地理的に近い地政學的な位置によって、歷史的に文化と政治交流は古代に遡れる。このような想像は出雲国風土記や日本書紀に伝えられる「新羅」との交流は非常に頻煩にかつ 密接に行われたことが知られる。さらにこのような交流は韓半島の政治や文化が日本に大きな 影響を及ぼしたことを想像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と共に韓國古代語が日本に流入され、日本の古代文獻に残存している可能性を十分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

上記のような觀點から本研究は出雲国風土記において古代韓國語の姿を探す作業の一環として、出雲国風土記の文體と訓讀の問題を檢討し、日本の代表的な古代文獻として知られる古事記、日本書紀、萬葉集などの8世紀資料において現れる古代韓國語の姿を出雲国風土記においても探す作業を通して、さらにそこに存在する古代韓國語の姿の性格の糾明を目標にしたいと思う。このような作業は其の当時の中央語を受け継いだと考えられる出雲国風土記の文獻の性格を窺うこともできると思うのである。

* キーワード: 出雲國風土記, 古代韓國語, 日本古代語, 西日本環東海地域語, 韓日同一起源語.

논문투고일 : 2005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9일
게재결정일 : 2005년 10월 18일